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3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신년**: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 위에 서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승리합니다. ***새해 달력**: 필요하신 대로 달력 가져 가세요.
5. 성경통독: 제 4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 진행(77일) 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 1/18(수)8시 Zoom 기도회(사도행전)
7. 소천: 9일(월) 전필주 집사님 부친. **중보기도**: 환우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8. **임명예배**: 다음 주일은 임명 임명예배로 드리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2,369.00)

-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유혜영, 임현선, 이진원 유금자,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이혜련.
-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박병기,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선교헌금(7Days 감사):** 김대용 천춘미,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특 별:** 뉴욕 그레이트넥 교회. **새해 서원 감사:** 유혜영.

2023년 교회 목표

-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흑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제15권 3호 2023년 1월 15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 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 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 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 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진원 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 40:21-23 다 같 이
- 설 교 Sermon 절망의 상황을 극복한 요셉 조병우 목사
- 봉헌찬송 Hymn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 같 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 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이진원 권사	조병우 목사	조은미 사모	조민연 박종님
다음주	조병기 권사	박종님 전도사	다 같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94주년 생일을 보내면서)

오늘 1/15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94주년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35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생일이 국가의 경축일이 되기는 조지 워싱턴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위치가 높고 평가된 것인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위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킹 목사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63년 3월 8일 워싱턴 대행진 때 “나는 꿈을 갖는다(I have a dream today)”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곤란은 점점이 쌓여 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갖는다. 언젠가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는 꿈을 갖는다. 나의 4남매가 피부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가득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애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불가능한 현실과, 부조리, 불의와 패배의 현실 속에서도 결코 꿈을 잃지 않았고 그 꿈을 믿었으며 꿈의 성취를 위해서 빈손이나마 굳게 잠긴 철문을 쉬지 않고 노크했습니다. 1929년 1월 15일 태어나 흑인의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1968년 4월 4일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킹 목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How My Mind Has Changed?)” 를 <크리스찬 선추리>에 기고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5번 알라바마 감옥에 갇혔고, 내 집은 두 번 폭파되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나와 가족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고, 칼에 찔려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이토록 괴롭고 무거운 짐을 앞으로 계속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매일 조용하고 쉽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질 때 고통의 짐, 그것이 비록 죽음을 가져오는 심한 멍에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고통의 체험을 통해 흑인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배웠다. 인간이 고통의 짐에 눌러 버리는 것은 사랑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고 내가 나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예수님처럼 사랑해 보려는 노력을 할 때 고통이 창조적인 힘 (creative force)으로 변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였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킹 목사는 자신을 ‘복 치는 사람’ 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어떤 인종 차별주의도 킹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13일 제 10회 미주 한인 날을 보내면서 자긍심과 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적 난관을 극복하며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위대하고 고상한 꿈을 이루어 나갑시다.